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KSC 봉사자 교육 세미나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개최

KSC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봉사자를 대상으로 NSC 2000년 신판 교재를 중심으로한 교육과 실습 위주의 동부지역 워크샵을 2004년 12월 3-5일 Baltimore, MD 에서 개최한다.

이어서 2005년 1월 7-9일 에는 Seattle, WA 에서 서부 지역 세미나를 개최한다.

KSC 는 NSC로부터 NSC 2000 새 지침서의 한글판 출간을 위하여 번역과 출판권을 받았고 한글판 새 지침서의 출간에 앞서 그 시행을 위한 봉사자 교육과 실습 세미나를 지역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새 한글판 지침서는 <http://kscusa.org> (KSC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동북부 봉사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김상혁씨 KSC 당연직 부회장 승계

동북부 봉사협의회(지도신부: 박용일 신부)는 2004년 9월 11일 플러싱, 성 프란시스코의 집에서 연례 회의를 갖고 임기가 끝난 임 문수 회장 후임에 김상혁 바실리오씨를 선출하였다.

동시에 동북부 봉사협의회 신임 회장은 KSC 2002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동안에 KSC 부회장 (당연직)을 승계하게 된다.

<http://KSCUSA.ORG>

KSC 웹 사이트에는 '성령 안의 삶', '성모 신심' 세미나 교재를 비롯, 성령 은사적 쇄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소식지 구독을 바라는 메시지를 남기시면 소식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2004 쇄신 세미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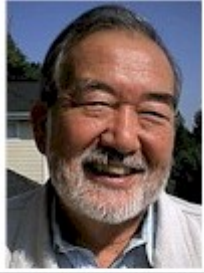
11/3-7	KSC; 과달루페 성모 성지 순례; 이 줄리아 (253-223-8775)
11/12-14	클리블랜드 한인 성당; 11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신 요안나 (440-835-3219, 821-8383)
11/25-28	동북부 봉사 협의회; 청년 성장 세미나; 이 데레사 (201-947-4717)
12/2	KSC 임원 회의
12/3-5	KSC; New LSS (2000판) 봉사자 교육 동부 세미나; 안 엘리자벳 (704-839-6445)
1/7-9/2005	KSC; New LSS (2000판) 봉사자 교육 서부 세미나; 이 줄리아 (253-223-8775)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쇄신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KSC는 금년 11월 1일로 창립
12주년을 맞습니다. KSC 자문위원
신부님들께서 쇄신가족과 은인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과달루페 순례단은 11월 4일 과달
루페 대 성당에서 과달루페 성모님
의 영정(원본)을 모시고 미사를 봉
헌합니다.

이미 말씀 드린대로 NSC가 발간한 2000년 LSS 새
지침서에 따른 세미나가 금년에 몇몇 공동체에서 시행
되어 본당 사목자와 신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지침서에 따른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교
의적, 사목적 차원에서 공동체 전체 신자들에게 광범위
하게 시행함으로 그 동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제기
된 소위 '성령쇄신'에 대한 혼란스런 인식을 점차 걷어
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을 통하여
'은사적 신앙쇄신'의 진수를 제시하고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에 따른 신앙 쇄신의 방도가 (은사의 쇄신이
아니라) 바로 '은사적 쇄신'이며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가 곧 그 '은사적 쇄신'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겠
습니다.

그래서 KSC는 금년 12월에는 동부 지역에서, 내년
1월에는 서부 지역에서 각기 봉사자를 위한 교육 세미
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세미나에서 봉사해온 가
르침 봉사자라도 새 지침서의 정신으로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적응시킴으로써 각 공동체에서 '은사적 쇄신'을
위하여 적절하게 봉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새로운 도전과 요청에 낙오없
이 적절하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Vancouver 기도회 (Canada)	\$300.00
송지혁 (New York, NY)	\$100.00
조규청 (Detroit, MI)	\$500.00

이제 200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호와 함께 보
내는 반송 봉투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주십시오. 아무
리 작은 나눔도 큰 기쁨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내 주시는 후원이 KSC와 1년 내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SS 2000 새 지침서의 특징

- 새 지침서는 성령 안의 삶 지침서가 가톨릭 본
당 공동체의 쇄신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
으로 선명하게 정리 제시하였고, 세미나가 복음
화의 좋은 수단이며, 신앙 쇄신의 열쇠가 되는
회두/ 회심의 가장 탁월한 도구임을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성사적 관점에서 세례성사 서약갱
신 (Renewal of Baptism Vows)과 그리스도교
인 입문성사(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가 받아 누리는 은총/ 성령을 새롭게 표출 (a
new release of the Holy Spirit)토록 하고자 하
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세미나의 핵심이 되는 회두/ 회심
(Conversion)이 몇번의 절정의 순간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처음 세미나에 참가하는 이들을
도와 주기 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교 성인 입
교예식 (RCIA)에서와 같이 후견인 (Sponsors)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 새 지침서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는 신자와 공
동체가 일상 생활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도
구, 즉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
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7주 세미나의 주제와 순서는 그전
과 동일하나 각 주 가르침의 핵심을 적절하게
보강 개정하였고 그에 맞게 주제 성서를 새로
뽑았다.
- 새 지침서에서도 역시 4주 가르침과 5주 가르
침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고해성사, 또는
봉사자와의 면담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를 세미
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http://KSCUSA.ORG가 새로와졌습니다.

KSC 웹 사이트가 개편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교재를 비롯한 각종
자료는 물론, 그 동안 소식지에 투고 되었던 독자 여러
분들의 글이 모두 게시판에 예쁜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악 봉사자 이 은경 줄리아의 피아노
명상곡을 비롯한 동영상과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방' 게시판에 글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소식지
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국인 매형의 환갑 잔치

이 계송, Beauty Times 발행인

(사회자) “다음은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를 증정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를 미국에 초청하여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 결혼한 누님의 초청으로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에 와서 살고 있는 내 친구의 가족들이 미국인 매형의 환갑 잔치를 벌이면서 매형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장면이다. 환갑 잔치에 무슨 감사패인가 의아한 분들도 있었지만 실내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서 나도 멤버로 뛰고 있는 미조리주 한국 문화원 멤버들의 궁중무, 부채춤, 그리고 사물놀이패의 공연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환갑을 맞은 주인공 로날드 하지스씨도 멋진 한복을 입고 함께 신명나게 춤을 추었다. 정말 백적지근한 잔치였다. 잔치 자리에는 35년 전에 만나 함께 미국에 온 환갑 잔치 주인공 내외분을 비롯하여 그 내외분이 초청하여 이민 온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친인척 - 형제 자매 사돈들 - 사돈네 친인척 - 친인척의 친인척 그리고 동네 한인 친구들, 미국인 친구들... 2백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

미국에 와 살면서 수 없이 한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나 잔치에 참석해 봤지만, 나는 이번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국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미주 한인 사회는 이민 초기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주저앉아 이민자가 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 결혼한 누나 덕에 이민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본격적인 미국 이민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누나들의 결혼 이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나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 형제와 부모를 초청하고, 그 형제가 또 자기 피붙이를 초청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누나 한 사람이 46가정을 초청한 것으로 통계 수치도 나와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동포 사회는 누나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누나들이 자기들을 초청한 사실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지난 15년 간 동포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결혼한 누나 덕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먼저 스텝 없이 나에게 털어 놓은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누나들은 달랐다. 대부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 훌륭한 가정을 이룩해 냈다. 그들은 용감했으며, 개척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이 국제 결혼이라면 그들은 개척과 모험에 성공

했다. 누구보다 부모, 형제 간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조국 사랑도 누나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주류 사회에 누구보다 깊이 참여하여 코리언을 알리고, 영어도 우리보다 한 수 위다. 그들은 유관순의 후예요, 한없이 깃뻛히면서도 5천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여인들의 끈질긴 생명의 맥박이다.

그런데 더더욱 자랑스럽고 고마운 사람들은 이러한 누나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누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 미국인 매형들이다. 한 사람의 형제를 초청하여 미국에 살게 해주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자립하여 생활을 할 때까지 누나들과 똑 같은 마음으로 항상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들 매형들이었다.

만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매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스프링필드의 내 친구와 그 형제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한다. 환갑 때만이 아니라 생일 때마다 감사패를 드려도 시원찮다. 그런 마음과 행동이 곧 사람의 도리요. 사람 사는 맛이다.

매형 만세! 누나 만세! 한미 가정 만세!

작은 나눔 큰 기쁨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시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HQ Office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분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소식지와 함께 우송되는 봉투에 작은 정성을 담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C: LSS 2000 새 지침서 봉사자 교육 동부 세미나

주제: LSS 2000 새 지침서 봉사자 교육과 실습
 일정: 2004년 12월 3일(금) - 5일(주일)
 장소: Servant Mission, Baltimore, MD
 지도 신부: 정광호 신부 (KSC 자문위원)
 회비: \$200.00 (Check - Payable to servant Mission)
 신청 접수: Servant Mission, 58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최 테레사 (513) 227-9541

KSC: LSS 2000 새 지침서 봉사자 교육 서북부 세미나

주제: LSS 2000 새 지침서 봉사자 교육과 실습
 일정: 2005년 1월 7일(금) - 9일(주일)
 장소: Mountain Index Cabin Center, Seattle, WA
 지도 신부: 이태우 신부 (KSC 자문위원)
 회비: \$100.00 (Check - Payable to KSC)
 신청 접수: KSC comm. Ctr.,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이 줄리아 (253) 223-8775 (장소관계로 참가 인원 제한)

-----자르는 선-----

KSC: LSS 2000 새 지침서 봉사자 교육 세미나 참가 신청서

성명(한글, 영어):		영세명(한글, 영어):	
전화(주택, 직장, 이동):		성별: 남() 여()	
Address:			
소속 봉사회, 기도회:		봉사 직책, 분야:	
항공편, 도착 일시:		출발 일시:	
e-mail address:		참가비 납부: \$	
저는 KSC 세미나에 참석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합니다. 신청하는 날짜: 200 년 월 일 서명:			